

# 나부터 먼저... 수의사회를 사랑합시다.

노 천 섭 /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일만여 대한수의사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1일 새로 부임한 사무총장이 회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77년도에 경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29년간 육군수의장교로 근무하였으며 육군수의병과장직을 끝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지난 3년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무이사로 일하였습니다. 우리회 사무처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미흡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모시고 사무처 직원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회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역량과 의지보다는 조직원 모두의 지혜와 단합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원님들의 끝없는 신뢰와 사랑,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협회의 특성상, 때로는 정부나 유관단체 등과 부딪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회원들의 단결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야하며,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질 줄 아는 단체로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는 다른 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회원수나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따라서 회원간의 결속이 어느 단체보다도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뽕뽕 뽕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4,500여명의 수의사가 배출되었지만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수의사는 42%인 6,119명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허를 받은 모든 수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입회원의 약 50%가 반려동물임상수의사들입니다.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있을 세계소동물임상수의사 대회와 세

계 양돈수의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60세 이상이 30%이고, 젊은 수의사들이 점점 기피하는 산업동물 수의사 인력 확보와 적절한 수익보장 그리고 진료의 질 향상대책도 우리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7년에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을, 2008년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항생제등 일부 동물약품에 대해서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긴밀한 협조 하에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 어떤 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단체와 정부부서 관계자에 대한 설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회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는 회관관리 및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을 제외한 수의사가 저를 포함하여 4명 뿐입니다. 수의사회지 발간사업에도 1명이 꼬박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바쁜 일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불분명하고 사소한 문제로 수의사회를 비방하는 등 좋지 못한 여론을 조성하는 몇몇 회원님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일을 잘못하였거나 회원님들께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이 사무처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서로가 불신하고 단절을 저해시키려 한다면 대한수의사회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무처는 회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이전의 폭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사무처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부나 우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히 알려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회 발전에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불만을 인터넷상에 띄워 회원들을 현혹시키거나 오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 사랑하는 회원님! ●●●●

앞으로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은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화하면서 수처작주(隨處作主)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고 변화합니다. 누가 먼저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변화시켜 나갑시다.

회원님들이 없는 수의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수의사회 없는 회원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며 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